

■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14:00~16:3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사무처 회의실

2019년 체육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도서관 대상)의 심의기준은 ①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② 제안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 매칭형은 여기에 ④ 상주작가 수행역량을 추가하여 각기 비율을 조정하여 평가하였다.

사전 매칭형은, 작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혹시라도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니라 작가 편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의위원들이 표시하였다. 사후 채용형은, 이에 반해 도서관 측에서 작가를 도서관 아르바이트쯤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핵심 의견은 도서관과 상주작가가 서로 신뢰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상주작가의 전문성과 상상력이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신청 도서관 중 사전 매칭형 4곳과 사후 채용형 2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3곳의 도서관을 예비후보로 두었다. 도서관의 사업 추진의지와 프로그램 기획력, 그 동안의 경륜들을 두루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작가에게는 일정 정도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서는 문학 독자층의 저변을 확대하며, 마침내 문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자와 독자, 매개자를 연결하는 유효적절한 공공서비스이다. 선정된 도서관들이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의 나날을 이루어가실 수 있길 바란다.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